

Reference List

- ## 1. Iwakiri H, Nagata O, Matsukawa T, Ozaki M, Sessler DI (2003) 프로포폴의 효과 부위 농도는 펜타닐 효과 부위 농도와 거의 독립적으로 의식 회복에 영향을 미친다. *Anesth An*
- ## 2. Shafer SL, Varvel JR, Aziz N, Scott JC (1990) 컴퓨터 제어 주입 펌프를 통한 펜타닐 투여의 약동학. *Anesthesiology* 73:1091-1102.
- ## 3. Ouchi K, Ohara S, Sunada K, Nagata O. (2008) [펜타닐에서 레미펜타닐로 진통제를 변경하여 총체적 정맥 마취 시 안정된 순환 동역학 경험]. *J Clin Anesth (Jpn)* 32:782-784
- ## 4. Kaneda K, Han TH (2009) 비선형 혼합 효과 모델링을 사용한 펜타닐의 비교 인구 약동학: 화상 vs. 비화상. *Burns* 35: 790-797.
- ## 5. Abrams JT, Horrow JC, Bennett JA, Van Riper DF, Storella RJ (1996) 수페네타닐로 인
- ## 6. Ackerman WE, Phero JC, Theodore GT (1990) 정맥 내 미다졸람과 펜타닐 투여 후 가슴 벽 경직으로 인한 의식 유지 상태에서의 통기 부족. *Anesth Prog.* 37:46-48.
- ## 7. Bennett JA, Abrams JT, Van Riper DF, Horrow JC (1997) 수페네타닐로 인해 발생한 마취 후 어려운 또는 불가능한 통기는 주로 목소리 락의 폐쇄로 인해 발생한다. *Anesthesiol*
- ## 8. Comstock MK, Carter JG, Moyers JR, Stevens WC (1981) 높은 농도의 펜타닐로 인해 발생한 마취 시 경직과 고탄소혈증. *Anesth Analg*60: 362-363.
- ## 9. Ouchi K, Uno H, Sugiyama K (2012) [로쿠로늄의 예비 투여가 레미펜타닐에 의한 어려운 통기 예방에 미치는 영향]. *J Clin Anesth (Jpn)*. 36:1601-1606.

This is the markdown version of the reference list. The table of references is structured in a numbered list format as per the original text.